

2016년 8월 21일(주일) 찾아오신 예수님(2)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주신 분"(요 3:16-21)

<도입>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판(정죄)에 대한 이해를 살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 열등감으로 가득한 세상

설교 시간 서두에서 언급한 네덜란드 여자 육상 선수의 인터뷰에서 보았던 열등감의 문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빠지지 않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집단적인 열등감도 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나 분열이 심하면 가족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속한 사회에 부끄럽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만연하게 되면 집단적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남북 분열은 민족적인 자긍심을 저해합니다. 문제는, 열등감이 지배하면 사람이 나아지지도,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미성숙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엡 4:13 참고)

이 열등감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창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생긴 수치와 두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죄책감과 은혜'에서 모든 열등감은 죄책에서 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은 정죄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열등감은 정죄로부터 발생합니다.

정죄는 영어로 condemn, judge 받는다는 뜻입니다. '넌 잘 못 됐어' '넌 아직 멀었어' '그렇게 하는 것은 틀렸어'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러면 성공하지 못해' 등의 정죄와 판단의 말을 듣고 자랍니다. 이렇게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나서, '내가 잘 했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할까?'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암암리에 스스로 묻습니다.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정죄에 빠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죄에는 법적 정죄, 도덕적 정죄, 이질적인 것에 대한 정죄, 심지어는 잘 하고 있는데도 빨리 못한다고 정죄... 이것이 우리 삶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2] 정죄 받는 세상에 행하신 일 (17~21 절 - 3:16 을 해설. 절마다 정죄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17 절. 세상을 심판(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18 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정죄 즉, 분리하고 판단하고 결정지어버리는 것을 뜻함)을 받지 않는다.

19 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즉, 정죄하고 정죄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더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

20 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미워한다는 말은 반감이 있다는 뜻. 판단과 정죄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화를 낸다. 동시에 정죄 안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있으므로 자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함. 즉, 자기가 정죄하는 것도, 받는 것도 드러내기 싫어함.

21 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왜냐하면 정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한 것이 드러날 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어린이들이 혼나지 않을 줄 미리 확신하면 자기가 행한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빛의 세상이 어둠으로 변질된 것은 서로에 대한 정죄 때문입니다. 정죄 안에서는 판단하고, 지적하면서 당신은 틀렸다,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말이나 표정이나 무언으로 보내고, 그러면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며 자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상태이고, 생명의 활력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시킨 인간의 상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16 절에서 선포됩니다.

[3] 정죄 없는 축복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 즉 정죄의 원리가 작동/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해방되면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죄 않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자유를 누리고 삶과 세상과 역사의 소중한 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옳고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청하고 그들 또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정죄가 지배할 때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결코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죄의 차원에서 벗어나게 하여 생명의 사랑의 차원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심으로써입니다. 정죄를 피하려면 한 가지 길 외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소모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는 죄책을 느끼게 하고 죄책은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열등감은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과 범벽이 되어서 내면의 정체와 질서를 알 수 없는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정죄의 어둠을 거두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죄 없는 사랑의 빛의 차원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죄 없으신 빛 가운데로 들어가 정죄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모든 죄책과 열등감을 무력하게 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생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우리가 정죄하고 정죄받는 삶의 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과 냉정함으로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나를 정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에 몸 담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나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3. 정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4. 정죄를 멈추고 정죄의 결과에서 자유하는 길을 찾아봅시다. 어디에 그 자유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